

전북자치도, 농수산물식품 일본시장 공략

2024년 동경 식품박람회서 농수산물식품 공동관 운영 현장 수출계약 33만불, 수출상담 87만불 성과 거둬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일본 시장개척을 위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일본 동경 빅 사이트(Big Sight)에서 열린 '동경 식품박람회(FOODEX)'에 참가해 33만불의 현장 수출계약과 87만불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농수산물 업체는 3개 기업으로 떡볶이, 간편죽, 간장계장, 다진마늘, 고춧가루 등의 간편식(HMR), 냉동식품 및 식자재 제품을 홍보·전시하고, 일본 및 동남북아 바이어들과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최근 일본 내 지속적인 엔저 현상과 현지 소비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박람회장은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특히, 일본 외식시장이 악화되고 가

정간편식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떡볶이 등 간편식(HMR)제품, 냉동제품이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우리도 참가기업들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및 바이어 상담결과, 익산 F기업은 일본 현지 바이어인 K사, G사와 다진마늘 19만불(약2.5억), 고춧가루 14만불(약2억)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군산 B사는 내달 일본 바이어가 군산공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샘플 테스트 후, 간장계장 수출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B사 관계자는 "이번 동경 식품박람회에서는 많은 바이어들과의 상담으로 자사제품에 대한 해외 현지 반응과 수출 가능성을 보았다"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우리도 주요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동경 빅 사이트에서 열린 '동경 식품박람회(FOODEX)'에 참가했다.

수출국인 일본으로 우리도 농수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미 진흥원장은 "박람회에 참

가한 우리도 기업들이 박람회 이후에도 수출 물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자치도, 이달부터 무료 희망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률·세무·노무 분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전북자치도가 청내에서 운영하는 무료 희망법률상담과 더불어 오는 13일부터 도내 59개 농공단지 입주 기업·근로자·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률·조세·노무 문제 해결을 위해 '2024 농공단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동상담실'은 변호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노무사 등 전문가들과 협업해 오는 3월 13일 무주군을 시작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및 노동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에 포함해 기업 경영, 노무 문제 등 상담이 쉽지 않았던 분야까지 상담 폭을 넓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노무사 및 외국인 통

역 지원을 받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료 상담을 원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도민은 누구나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과(☎063-280-2847) 또는 해당 시·군 농공단지 부서에 전화예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상담실 이용이 어려운 도민은 전북자치도청 1층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방문, 유선 및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주 1회 운영하며, 매일 첫째·셋째·다섯째 주는 수요일 주간(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5시), 둘째·넷째 주 목요일은 야간(오후 6시~8시)에 운영되며, 상담 시간은 1인당 30분 가량이다.

/김재훈 기자

'사례로 이야기 하는 인권 감수성' ... 전북자치도,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

박준영 변호사, 강사로 초빙 인권 바로 알기 위한 내용 강연 김관영 도지사 "도민 인권 보호·증진 열·성 다하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사례로 이야기 하는 인권 감수성'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0년 7월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자치단체 중 세번째로 인권행정전담기구를 설치,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은 정책결정과정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간부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중요함을 인식해 지난해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로 초빙된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재심 전문 인권변호사로 '사례로 이야기하는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11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 인권교육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강사로 초빙된 박준영 변호사의 '사례로 이야기 하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듣고 있다.

여러 상황을 인권적 차원에서 고민하며 문제의식 갖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 인권을 바로 알기 위한 내용을 강연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차별과 경멸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운을 주고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 분들이 각 부서로 가서서 부서원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기운을 주신다면, 전북자치도 인권행정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지방소멸기금 우수 사업지 방문

임상규 부지사, 장수군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지 등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1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장수군 계북면 소재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지와 장수읍 소재 트레일빌리지 사업지를 각각 방문했다.

먼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결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원에 스마트팜 조성비용과 지역정착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임상규 부지사가 방문한 A농가는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온 26살의 청년농부 Y씨가 주축이 돼 토마토 스마트팜(4,536㎡)을 운영하고 있다. Y씨는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4기(2021년 6월~2023년 6월) 수료생으로 서울에서 나와 자란 도시청년이며, 부모님을 모시고 귀농하기 위해 스마트팜 교육 20개월을 수료했으나, 스마트팜 시설 자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작년 본 사업을 신청했다.

Y씨는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도에서 주관하는 정착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시

설원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이어서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장수 트레일빌리지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본 사업은 산악마라톤의 성지인 프랑스 사모니를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

장수군과 장수군의 대표 청년단체인 '러닝코루(대표 김영록)'는 산지가 많은 장수군의 자연지형을 활용한 트레일 레이스를 테마로 한 마을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기금과 도비를 합쳐 총 21억원을 투입해 장수군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청년단체 '러닝코루(대표 김영록)'는 장수군에 정착해 2022년부터 장수군 트레일레이스 대회를 주관했고, 국내외에서 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등 장수를 트레일레이스의 성지로 알리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를 막기위한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청년층 유입을 위한 사업에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